q4에서는 출근시간 최대 승차역 30개, 최대 하차역 30개, 최대 승하차역 30개를 추출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하였다.

승차역 그래프에서는 신림역이 승차 인원이 대략 500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대략 350000명, 서울대입구역에 대략 320000명, 잠실역이 대략 300000명 순이었다.

하차역 그래프에서는 역삼역이 하차 인원이 대략 580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대략 550000명, 삼성역이 대략 520000명, 을지로입구역이 대략 480000명 순이었다.

승하차역 그래프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대략 680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역삼역이 대략 600000명, 그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대략 590000명, 그 다음으로는 강남역이 대략 570000명 순이었다.

데이터 시각화 결과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승차 인원이 대략 500000명인 신림역이고,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하차 인원이 대략 580000명인 역삼역으로 나타났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승차 대략 350000명, 하차 대략 330000명, 총 승하차 인원 680000명으로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